



# 추자도의 다양한 생물을 보듬는

# 수령여



해양수산부는 2026년 3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 및 특정도서인 '수령여'를 선정하였다.

수령여는 상추자도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높이 약 109m, 면적 62,009㎡의 규모로 섬 하부가 유백색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수령'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추자군도 '주변 해역을 거느리는 섬'이란 '수령(水領)'과 바다 위로 솟아오른 능선 혹은 고갯마루 같아 보여 지형적 특징을 표현해 '수령(水嶺)'이라는 의미로 전해지고 있다. 1961년 '수령섬'으로 고시되어 2003년에 현지에서 주로 쓰이는 '수령여'라는 명칭으로 변경 고시되었다.

백악기에 뜨거운 화산재가 서로 붙어서 단단히 굳은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령여는 섬 주변으로 수직절리가 발달해 있으며 섬 속의 작은 바다라고 불리는 조수웅덩이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좁쌀무늬총알고둥과 두드럭배말 등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해양생물들이 관찰된다.

무인도서 실태조사 결과, 곰솔을 비롯해 후박나무와 바위손, 유채 등의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매, 국제보호종인 섬개개비 등의 조류와 한반도 고유종인 긴꼬리색새기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령여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 및 비짓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적 62,009㎡,  
높이 약 109m인  
준보전무인도서  
수령여

곰솔, 유채 등의  
식물과 천연기념물 매,  
국제보호종 섬개개비  
조류 등이 관찰된다.

섬 속의 작은 바다,  
조수웅덩이와  
다양한 해양생물  
관찰이 가능하다.